

##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의 안 번 호	6611
------------	------

발의연월일 : 2007. 5. 15.

발 의 자 : 정문헌 의원

찬 성 자 : 58인

### 주 문

대한제국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또는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고,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고 대한제국 황실은 무너졌다. 그로부터 1945년까지 36년의 기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 국사교과서는 시기는 짧지만 그 서술 내용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바로 당시를 거울로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후속세대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의 역사서술에서는 이 시기를 “일제식민지시대” 또는 “일제 강점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이 시기 대일항쟁을 “독립운동”, “독립운동연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성숙된 국가의식과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기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문제를 파생시킨다.

역사학계와 정부는 이 시기 연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대한 연구 성과가 다수 산출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큰 틀에서 제2차 한일협약과 관련해 “고종황제가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일부 정치권, 즉 이완용을 비롯한 반역친일파들은 일본의 제2차 한일협약과 한일합방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대한제국 정치인과 국민들은 일본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저항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3.1운동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3.1운동이 물리적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일본과 투쟁하고 본토 수복을 위한 망명정부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을 가져왔다. 임시정부는 갖은 고난에 굴하지 않으면서 대일항쟁의 빛을 밝혔다. 임시정부의 대일 저항과 투쟁은 ‘우리 민족의 빛을 되찾는’ 광복(光復)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그 정신은 오늘에까지 국민정신으로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국사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일제”, “강점기” 등의 표현 사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에 우리 국사교과서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인 “식민 지배”, “일제 강점기” 등을 우리의 주체적이고 저항적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역사적 정통성을 견지할 수 있는 표현인 “대일항쟁기” 등으로 수정할 것과 아울러 우리 근·현대사가 그러한 방향에 입각해서 기술되고 학습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에 공공기관의 해당 공문 등에도 일제 식민지나 강점기 등의 표현을 “대일항쟁기” 등의 유사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에 천안 목천에 소재한 독립기념관의 명칭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선조들의 대일 항쟁 정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 표현인 “대일항쟁기념관” “대일승전기념관” 등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의 역사서술에는 일본의 침략 36년을 정당화하는 “일제식민지시대” 또는 “일제 강점기”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아울러, 동 시기 우리 민초들의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한 피나는 항쟁은 “독립운동”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먼저, “일제식민지시대” 등의 유사 표현들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주체가 되는 역사에서 피동성이 크게 부각되는 동시에 이 시기가 일본의 근·현대사에 편입되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역사의 전통과 정통성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것들임. 즉,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을 임시정부로 규정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됨. 아울러, “독립운동” 등의 표현도 당시 우리 민초들의 항쟁의 대상을 적시하고 있지 않은 중립적 표현이라고 하겠음.

아울러, 이러한 표현들은 국사교과서 안에서 사용되는 표현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적절치 않다고 하겠음. 예컨대, 고려시대에 여러 측면에서 대일 항쟁시기보다 더 심한 정치적 압박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대몽항쟁기’라고 규정하고 있음.

더 중요하게,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학문수준은 과거를 털어버리고 희망찬 미래를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자라나는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미래지향적 역사해석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리 선조들의 대일 항쟁 정신을 올바르게 부각시키고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선 국사교과서 등에서 사용되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일제식민지시대” 등의 유사표현과 당시 민초들의 대일항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독립운동” 등의 표현들을 “대일항쟁기”, “대일항쟁운동” 등의 표현으로 수정 내지 대체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측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